

金賞 유명열 銀賞 한복수 銅賞 최영성氏

포천시 제4회 노인회호대회 30여명 참가

포천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포천시지회(지회장 이금중)가 주관한 제4회 노인회호대회가 최근 포천시 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노인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정신력을 고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회호대회 명제는 청사대구(淸詞對句) 중 칠언대구에서 백년담물 일조진 삼일수심천재보(百年食物一朝盡 三日修心千載寶), 청산불

묵만고병 유수무현천년금(靑山不墨萬古屏 流水無絃千年琴)이 제시됐다.

이날 금상을 차지한 유명열(영북면) 씨에게는 상장과 20만 원의 상금이, 은상과 동상을 받은 한복수(소흘읍) 씨와 최영성(신승동) 씨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포천시는 노후생활에 여유와 활력을 주고 있는 노인회호대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4회 포천시 노인회호대회가 3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노후생활에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문화발전 선도적 역할 다짐

포천문화원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1월 14일 원장, 부원장을 비롯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문화원 2층 강당에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천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문화원 현황 및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회의에 앞서 재경포천시민회 수석회장으로 추대된 이각모 (주)

동방 대표이사에게 추대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천문화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하여 주신 자문위원들의 자문에 힘입어 포천문화원이 2006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15년 저력으로 회호대회 금상 수상

영운서실, 포천시 노인회호대회 좋은 성적 거둬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가 지난 10월31일 개최한 노인회호대회에서 영북면 '영운서실'의 유명열(금상), 김용순(장려상) 씨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靑山不墨萬古屏 流水無絃千年琴' 과 '百年食物一朝盡 三日修心千載寶'의 서재를 가지고 열린 이날 대회에서 금상 영북면 유명열, 은상 소흘읍 한복수, 은상 신승동 최영성, 장려상 영북면 김용순 등 3명이 수상했다.

영북면 복지회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영운서실'은 최인환(최외과 원장) 훈장이 1991년 교회 청년들에게 서예를 지도할 목적으로 운천 감리교회에서 개강하여 복지회관 1층, 농협예식장, 소방대 2층, 복지회관 2층으로 옮겨다니며 2006

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등단한 영운 이봉석(성심외과 원장)의 지도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경기서예대전, 한국서예대전 등 많은 대회 입상경력을 자랑하는 영운서실은 초등학생지도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전국학생 서예대전에서 이슬미(영북초 6년)양이 입선하기도 했다.

최인환 훈장은 "그동안 영운서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꿈나무인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서예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지난달 31일 개최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개최한 노인회호 대회에서 영북면 영운서실 유명열씨가 금상을 수상했다.(사진은 영운서실 최인환 훈장의 지도하는 모습)

韓國의 선비정신 · 48

사림(士林)으로부터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다고 칭송받은 박태보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박태보(朴泰輔): 1654년(효종 5)~1689년(숙종15).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 본관은 반남. 판중추부사 세당(世堂)의 아들.

아버지 세당은 실학파의 대학자로 유명한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한 주자학파(朱子學派)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탄핵되어 사탈관직되고 유배도중 죽었으나 곧 신원되었다.

1667년(숙종3)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 홍문관 교리, 안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15) 기사환국(己巳換局)·...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 원재(元在)로 책봉하려하자 서인인 송시열(宋時烈)이 시기가 빠르다고 반대하자 실각되었던

남인들이 송시열 등을 왕명을 거역하는 불충한 무리라고 서인을 탄핵, 왕을 충동하여 대옥사를 일으켜 서인을 축출하고 마침내는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아 이를 반대하던 영의정이었던 김수항과 송시열을 사사케한 사건이 일어나자 박태보는 벼슬을 버리고 집에 있

다가 동지들과 더불어 소를 울려 강력히 항의하자 숙종이 대노하여 전정(殿庭)에서 국문하는데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도 후호도 흔들리지 않고 인현왕후를 폐위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항거하였다.

금천(鈞川)으로 귀양가다가 노량진에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 36세였다. 시호는 문렬(文烈)이다.

왕이 잘못한 것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간(直諫)하던 우리 옛 선비들의 기개, 이것이 한국의 선비정신이다. 이 선비정신이 있었기에 조선조가 500년의 사직을 유지했던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이 절운

하였고 문예(文藝)가 일찍 익혀졌으며 강단(剛斷)이 지나쳤으므로 남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다.

급기야 장성해서는 스스로 반성하여 말과 행동을 조용히 하며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시(詩), 서(書), 사서(四書)와 송유(宋儒)의 글에 전력하여 정미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의 문장은 현달하였다.

27세에 수찬(修撰)이 되었을 때 제학사 중의 으뜸이 되었으므로 소장(疏章), 논술(論述)에 있어서는 모두가 태보에게 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보는 뜻이 고상하고 식견이 투철하며 몸가짐이 엄격하고 경전에 전력하고 주역에 통달하여 경연(經筵)에서 서슴치 않고 이론을 전개하여 모든 학사들이 감복하였다.

태보가 죽은 뒤 숙종이 후회하며 벼슬을 물려주고 사림(士林)이 노량(露梁)과 파주(坡州)에 서원을 세워 그의 충절을 기렸다.

유저로는 정재집(定齋集) 14권이 있다.

다양한 장르 연극 感想

포천연극협회 제8회 포천연극제 개최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이희용)은 11월15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8회 포천연극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 짝을 맞이하는 이번 연극제는 경기도에서는 유일한 시간대 종합연극제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극이 한 무대에 올려져 분야별로 나눠진 연극공연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포천연극제를 개최한 연극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작품과

많은 팀이 참가하여 포천의 공연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경량의 무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포천연극제를 통해 배출된 팀들이 각종 연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포천의 무대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연극제로 이번 공연에도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연극제는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포천신문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마홀남성합창단 제13회 정기연주회

포천마홀남성합창단(지휘 윤희철)은 12월2일 오후7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포천에 적을 둔 음악을 사랑하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마홀합창단이 포천시민을 위해 재미있고 흥겨운 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연주회는 남성합창단 특유의 힘차고 장중한 선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마홀남성합창단은 1994년6월25일 마홀중창단을 창립하고 창립연주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13회째 정기공연을 개최해 포천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대 漢詩

儒林敬老侍宴感懷

유림경로시연감회



鄭 麒 容 화산서원장

紅顏元老性情眞(홍안원로성정진)

홍안의 주변 원로님들은 성정이 바르고 곧아서

知足隨天仰衆民(지족수천양중민)

족함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네

篤孝善行懷舜直(독효선행회순직)

돈독한 효행과 선행들은 곧은 순임금을 생각해 하고

崇倫懿跡效堯淳(숭륜의적효요순)

윤리를 숭상한 아름다운 발자취는 요임금의 순박함을 본받았네

滿盤盛饌賢賓樂(만반성찬현빈락)

만반의 성찬들은 어진 주인들을 즐겁게 하고

盈酌佳肴侍者仁(영酌佳肴侍者仁)

가득채운 술잔과 좋은 안주는 시생들의 정성이 배어 있다.

男女儒生共說宴(남녀유생공설연)

오늘은 청년 여성 유도회가 힘을 모아 마련한 잔치인데

傳承良俗氣品彬(전승양속기품빈)

양속을 받아서 이으니 그 기품이 만양 빛나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81)

효자 신윤하(孝子 申胤夏)

내촌면 음현리에서 살았던 효자 신윤하는 '출천지효(出天之孝: 하늘이 낸 효자)'라고 칭송이 높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효자로 추천하여 나라에서 효자정려(孝子旌闈)를 하사 반가에 이르렀다. 1685년(조선조 숙종 11년) 금현리에서 살았던 신윤하님은 본관이 평산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재기(才氣)가 있고 총명하여 20세 전에 모든 경서를 독파하였다. 이웃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대의 높은 학문으로 보아 과거를 보아 조정에 나아가 나랏일을 돕지 않겠느냐?" 하였다 한다.

그러나 효자 신윤하님은 아무리 권해도 "내가 외아들이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받들 사람이 없어서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의 국정이 소란해서 의(義)가 땅에 떨어졌으니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부모께 효도는커녕 오히려 근심함을 심어줄 것이니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만 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 서이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일이 생겼다. 어느 해 겨울, 아버지가 병을 얻어 신음하게 되자 의원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백약이 무효(百藥之無效)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의사 한 분이 하는 말이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그 병에는 산 기러기 피가 약인데 어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즈음과 같이 기러기가 흔하지도 않고 사육하는 농가도 없던 시절이라 효자 신윤하님은 산 기러기를 구하고자 백방(百方)으로 노력하였으나 매일 허탕만 치고 돌아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아무리 산과 들로 다녀도 높이 떠서 가을에 남으로 가고 봄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살이있는 기러기를 구한다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늘의 힘을 빌어 산 기러기를 구하기로 하였다.

"하늘이시여 친자신명이시여 두 손 모아 비옵나이다. 기러기를 잡아 그 피를 내어 아버님의 병환을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기를 여러 날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날아가던 기러기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와 떨어졌다.

"올라 되었다. 이 기러기를 잡아 피를 내어 드려라지..." 이렇게 생각한 효자 신윤하는 잠달 날아든 기러기의 목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님께 드렸더니 피를 드신 아버님은 약효를 얻어 완쾌되시었다.

그 후, 효를 다하다 아버님이 작고하시니 3년 시묘살이도 하였다고 한다. 늦게 음현리에서 자손을 기르고 가르쳤으며 조정에 서는 효자정려문(孝子旌闈)이 내려졌다고 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